



영산강 르네상스

상류 샷강 살리고 해수유통, 수량 늘려야

<1부> 살아있는 강으로

② 수질 개선 대책

영산강 물길이 막힌 지 28년. 하구둑에 막혀 '죽음의 강'으로 변한 영산강이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시 '생명의 강'으로 거듭날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8일 정부가 최종 확정한 영산강 마스터플랜은 흥수와 가뭄 등 치수대책과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막힌 물길을뚫고, 영산강 수계에 대한 물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과 치수대책까지 갖춰 영산강을 다시 자연의 강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 해수유통·수량 확보 확관=1980년대 국토개발정책에 따라 농지개발과 농업용수 확보, 염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산강 하구는 콘크리트 갑문으로 막히게 됐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바다를 향해 흐를 수 없는 영산강은 시름시를 얹게 됐고,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하구둑 갑문을 개방해 바닷물 유통을 시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바닷물로 인한 경작지 염해 피해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영산강의 해수유통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농업용수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데다 인근 농경지 경작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민원 소지가 다분해서다.

그래서 정부는 해수유통을 시도하는 대신 11km의 농경지를 정리하고 10개소에 78km의 생태하천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영산강 하구둑 갑문 폭을 기존 240m에서 480m로 두 배로 넓히고 영산호와 영암호에 폭 30m짜리 배수문을 증설하고 영산호~영암호 연락수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 때 죽음의 호수로 불리던 경기도 시화호가 해수유통을 통해 호수가 살아나 생태하천으로 변한 점을 감안하면 농업용수 확보 방안과 염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다면 해수유통도 고려해볼 만한 수질개선 대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수량 확보도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량이 많고 유속이 빠를 경우 각종 오염원과 퇴적층을 바다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 복원 자연정화 능력 키우고 지천 하수처리시설 확충 시급

◇ 샷강 살리기=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본류뿐만 아니라 주요 지류 하천 정비도 포함돼 있다. 영산강은 170개의 지천(샛강)으로 이중 96%인 163개의 하천이 지방 2급 이하의 하천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천에 대한 관심은 없이 본류 위주의 수질개선 대책만이 추진돼 왔던 점도 영산강을 죽음의 강으로 몯вин 중 하나다. 따라서 샛강 살리기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시민·환경단체는 영산강 상류지역 지천의 수질상태가 매우 나빠 강 본류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산강운하 백지화운동 광주전남시민행동'과 '한반도운하를 반대하는 광주·전남 교수모임', '생명의 강 연구단' 등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3월 21일 영산강 하구둑에서 담습지까지 96km 구간, 13개 지점에서 수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영산강 하구둑을 기준으로 상류 13km 구간까지 하상도는 육안으로 봄에 퇴적돼 있었으며, 하구둑 인근 수심 12m 지점은 DO(용존산소)가 0.28ppm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산소 층이었다.

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실험 결과에서는 전체 2.1~5.0ppm의 범위로 극학교 부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영산강 전체 수질은 3등급수의 보통 이하 수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영산강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타 하천과 비교할 때 영산강 유역에 고도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 오염원을 조기에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또 영산강 인근에 있는 하천둔치 등의 농작물 경작지에서 유출되는 비료와 농약 등 각종 오염물질도 본류나 지류로 유입돼 지천의 물이 흘러 결국 본류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는 "수중보 척이나 준설에 집중하는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물 살리거나 수질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천이나 상류지역 오염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질개선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영산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하수처리장 15개 ▲마을 하수도 127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증설 3개 ▲하수관거 확대 22개 등 환경기초 시설 확충 및 고도화 시설 사업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빗물을 통한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한 빗물 침투 저류시설과 생태 유수지 등 37개와 농촌 둑방 및 생태 습지 30곳을 조성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되는 농약·비료 등 오염물질을 줄이 계획도 갖고 있다.

◇ 생태 복원=수질 개선을 통한 생태복원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강의 자연 정화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태복원이 우선돼야 한다. 경기도 시화호와 경남의 태화강이 죽음의 호수와 강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보고자 된 것도 스스로 자연 정화능력을 키운 생태복원 사업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내 농경지 정리와 영산강 4개소에 5.5km의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수계 내 130km에 달하는 국가하천 생태하천 조성과 함께 5개의 지천을 복원할 계획도 영산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랜 세월 남도의 땅, 남도 사람들과 함께 해 온 영산강. 남도 땅 350리를 흘러오다 거대한 콘크리트 하구둑에 막혀 자연의 기능을 상실한 영산강이 '생명의 강'으로 거듭날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 사진은 영산강 물길을 막은 영산강 하구둑.



영산강 살리기의 대명제는 수질개선에 있다. 영산강 본류에 대한 수질대책도 좋지만, 우선 비점오염원 유입이 많은 영산강 170개의 샛강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사진은 환경단체 회원들이 영산강 하구언에서 수질검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메가박스
구.현대약국사거리 ☎ 1544-0600

1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최고급관
2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3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4관 마더 (18세)
5관 마더 (18세)
6관 천사와 악마 (154)
7관 7급공무원 (12세)
8관 김씨표류기 (12세)
9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10관 마더 (18세)

상무점 전관 좌석 교체!! 1588-7941
개끗하고 편안한 좌석에서 영화의 감을 느껴보세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한토시랑 영화사랑 ☎ 088-70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화재빌딩)

1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2관 코렐라인 (전체) 에코 (154)
3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4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5관 천사와 악마 (154)
6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7관 마더 (18세)
8관 7급공무원 (12세)
9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10관 마더 (18세)

상무점 전관 좌석 교체!! 1588-7941
개끗하고 편안한 좌석에서 영화의 감을 느껴보세요!

천사와 악마

고객센터 ☎ 1588-8120

하미 시네마
전대점 허미스포츠 ☎ 267-7777

1관 박쥐 (18세)
2관 마더 (18세)
3관 코렐라인 (전체)
4관 스타트랙: 더 비기닝 (12세)
5관 마더 (18세)
6관 김씨표류기 (12세)
7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8관 7급공무원 (12세)
9관 천사와 악마 (154)
10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 500여대 네온 주차장(34기둥) * 365 매일 심야
* 051-561-0000 & OK 카페&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69-5757 * 하이 물파크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00 * 하이 물구장

하미 시네마

색깔있는 영화신문 ☎ 1544-0070

씨너스 전대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마더 (18세)
2관 7급공무원 (12세)
3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4관 천사와 악마 (154)
5관 김씨표류기 (12세)/스타트렉: 더 비기닝 (12세)
6관 인사동스캔들 (15세)/천사와 악마 (154)
7관 마더 (18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 아동청소년 할인혜택
* 세이너스녹화 사무실(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씨너스 전대

세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총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2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3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4)
4관 마더 (18세)
5관 에코 (16세)/천사와 악마 (154)
6관 7급공무원 (12세)

* 드림주차 3시간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청소년 할인혜택
* 세이너스녹화 사무실(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227-1960

제일 시네마